

#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 개최

### 21일 개막식... 김천시와 기획한 '김군맥주' 판매·페스티벌 주제곡 '군산 블루스' 첫 공개

해를 거듭할수록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이 21일 개막한다.

군산시는 이번 축제에서 자매도시인 김천시와 함께 기획한 '김군맥주'를 선보인다. '김군맥주'는 '군산 바이젠'과 '김천 에일' 두가지 맥주로 구성되고 세트로만 판매될 예정이다. 주원료는 군산맥아와 김천의 밀을 반반씩 넣어 만들어 두 도시의 협력과 상생을 담고 있다.

'군산 바이젠'은 군산맥주 4개 업체가 생산하고, '김천 에일'은 김천의 한 수제맥주 업체가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군산시는 다른 교류도시와도 지역특산 맥주 콜라보 상품을 시리즈로 출시하여, 로컬맥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군산맥아의 판로확대 뿐 아니라 지방도시간 공동 도시 마케팅으로 발전시켜갈 계획이다.

또한, 군산시에서 수제맥주 페스티벌 노래로 제작한 '군산 블루스'가 개막식에서 처음 대중들 앞에서 공연된다. '군산블루스'는 21일에 공연하는 '최항석과 부기몬스터'의 최항석씨가 작곡해, 현재 음원사이트에 싱글앨범으로 발매되어 있다.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은 타 맥주 축제와 다른 차별성에 대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주목하고 있다. 올해 축제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이 21~23일 군산근대역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

에는 부산시 북구, 평택시 등 7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축제를 참관한다. 개막식에는 김천시장이 축사를 하고, 23일에는 서울시 노원구에 서 구청장이 직접 관련부서와 축제를 참관할 예정이다.

로컬 융복합컨텐츠로 농업·먹거리·숙박·관광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은 갈수록 관련 기업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이번 축제장에서도 36개 관내 음식집들이 부스를 운영하고 지역 호텔과 식품기업이 후원과 홍보에 참여하여, 해외여행 상품권, 호텔숙박권과 특산

품 등 다양한 경품을 후원하고 있다.

김인준 군산시장은 "김군맥주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다음 콜라보 제품도 기대해서도 좋다"며 "자매도시들과 공동 마케팅을 통해 도시홍보에 활용하고, 군산맥아 판로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축제는 군산근대역박물관 일원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오후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신촌 블루스, 김창완밴드, 부활 등 16개 국내의 밴드가 화려한 라이브 공연과 군산 수제맥주, 다양한 군산맛집들의 음식들을 즐길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전북자치도 시군 발전·협력에 최선”

### 정현을 익산시장,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선출



정현을 익산시장이 민선 8기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전북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9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열린 도·시군 정책협의회에 앞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현을 시장을 후반기 협의회장

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 시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앞으로 2년간 전북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과 더불어 도내 14개 시·군의 각종 현안 사업을 놓고 중앙 정부와 함께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전북 14개 시·군이 상생하는 것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발전과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996년 8월 1일 설립돼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2024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대상 영예

### 국립군산대 이장호 총장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은 TV조선 '2024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19일 서울 더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장호 총장은 2022년 3월 18일 국립군산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취임하여, 교육수요자와 기업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학사 구조 개편, 통학버스 전면 무료화 및 최첨단 학생생활관 신축 등 학생복지 중심 정책, 국립대학 최초 '전과 프리 대학' 선언, 무학과 자율 전공학부 신설, 학생 전공 선택권 자율화 등 과감한 혁신 드라이브로 국립군산대학교를 전국구 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다.

국립군산대는 2024년 신입생 모집에서 지원생 70%가량이 전북을 제외한 수도권 및 전국에서 지원하는 역지원 현상이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중 현상 심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지원생 분포가 전국 단위로 확장되면서 빛썰 신드롬을 타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지난해보다 4% 상승한 최종 99.4%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또한 취업률도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상승 폭인 2.2%보다 3배가량 높게 상승하였다. 2023년 대학정보공시 발표에 따르면 국립군산대학교의 취업률은 6.1% 상승한 61.6%로, 현재 국립군산대학교가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교육혁신 작업의 긍정적 성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든든한 재정확보와 최우수 평가를 통해 대학 발전을 선도하였다. 지난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

이장호 총장(사진 오른쪽)은 2024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대상 교육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다.

신(RIS) 사업과 에너지신산업 중심대학 선정되어 2028년까지 5년간 약429억원을 지원받으며,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으로 8년간 200억원을 지원받는다. 2023 국립대학 육성사업 최우수 평가와 인센티브로 111억원을 확보해 교육시설 국비 예산을 수배 증액했다. 또한 지역연계복합센터(300억원), 해양융합 혁신미래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400억),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80억 규모(5년), 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 28억 규모(5년)과 강소특구육성사업은 최우수 평가 받아 2단계 돌임을 앞두고 있다.

학생복지 향상과 학생 중심 대학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480개 호실 전체에 비상벨을 설치한 최첨단 친환경 학생생활관을 신축했다. 지난해 신입생 통학버스를 무료화하고, 올해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무료화하며 통학버스도 기존 16대에서 28대로 대폭 증편했다. 또한 천원의 아침 밥상과 천원의 아침 아메리카노 제공해 학생 만족도를 크게 향상했다.

TV조선 '2024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기업과 기관의 최고경영자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여 세계를 무대로 성공적인 활약을 한 기업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였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함라산 '산림복지 벨트화' 추진 박차

### 62ha 규모의 국립 치유의숲·산림복지시설 조성...6월 말 준공 예정

### 허전 부시장, 도시숲 조성 현장 방문...마무리 작업 철저히 추진 지시 등

익산시가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함라산 국립 치유의숲과 산림복지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허전 익산시 부시장은 19일 치유의숲과 치유센터 방문에 추진 현황을 살피고 마무리 작업의 철저한 추진을 지시했다. 이어 도시숲 조성 현장과 산림문화체험관 및 옹포 고풍이 유아숲체험원 재정비 현장을 점검했다.

익산시는 서부지방산림청과 함께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78억 원을 투입해 함라산 일원 62ha에 국립 치유의숲 조성 및 산림복지시설 확대 등 함라산 산림복지벨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치유센터는 연면적 788㎡ 규모의 2층 건물로 다목적치유실, 심신이완실, 온열실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을 진행하게 된다. 실외에는 치유숲길(2.16km)과 물치유장(310㎡), 경관폭포를 비롯해 명상공간으로 쉼터 등 10개소(2,200㎡)를 조성한다.

함라산 도시숲 조성은 치유의숲 연계사업이다. 국비 20억 원을 투입해 치유센터 주변에 숲속도서관과 전망대, 산책로, 경관 숲 등 차별화된 공간을 조성한다. 치유의숲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함라산은 최북단 차나무 군락지가 형성돼 있는 익산의 대표적인 산림관광 자원이다.

차나무 군락지 인근에는 2009년 익산산림조합이 조성한 익산산림문화체험관이 위치해 있다.

익산산림조합은 치유의숲 조성에 발맞춰 자체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노후 테크를 교체한다. 또한 카페

와 목공실 리모델링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시설도 손님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옹포 고풍이 유아숲체험원은 2018년 운영을 시작해 1.6ha 면적에 트리하우스, 세족장, 밭줄놀이 등 숲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익산시는 35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네트놀이대, 로프건너기, 흔들다리 등 신규시설을 설치한다.

허전 부시장은 “정부의 산림정책 방향이 과거 목재생산에서 숲의 기능 및 중요성을 활용한 산림치유·산림교육 공간 조성 등으로 바뀌고 있다”며 “익산시도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시민들의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함라산을 휴양·문화공간으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 집중안전점검 최종보고회

군산시가 신원식 부시장 주재로 국소장 및 소관부서 담당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점검을 완료한 시설물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 및 보수보강계획 등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량 등 10개분야 134개소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소관부서,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간 합동으로 추진 중으로 현재 133개소(99%) 완료했고, 6월 20일 군산공공하수처리장 환경정화 합동점검을 끝으로 점검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신원식 부시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및 보수보강 계획에 따라 빠른시일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고,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위하여 참여해주신 모든 민간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시민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정용,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포 배부 및 새만금 국제마라톤 홍보부스 운영, 자체 캠페인 추진 등 안전문화 확산에 힘썼다.

/군산=이재춘 기자

“점검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및 보수보강 계획에 따라 빠른시일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고,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위하여 참여해주신 모든 민간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시민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정용,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포 배부 및 새만금 국제마라톤 홍보부스 운영, 자체 캠페인 추진 등 안전문화 확산에 힘썼다.

/군산=이재춘 기자

아울러 시는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시민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정용,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포 배부 및 새만금 국제마라톤 홍보부스 운영, 자체 캠페인 추진 등 안전문화 확산에 힘썼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

군산시는 2024년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운영계획을 세우고 연내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분야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기관장 포함 전 직원은 매년 각각 1시간씩 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에서 연중 사이버교육으로 이수 가능하다. 교육에는 4대 폭력 예방을 비롯한 지필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예방 등 내용도 포함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